

비정규직 고용 동향 분석
['06.8 ~ 07.3]

2007. 6.

< 목 차 >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요 약> 1

I. 최근 고용동향과 비정규직 증가 2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추이 2
- 비정규직 근로자 종사자 지위별 규모 추이 3
- 고용형태 전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 4

II. 고용형태 이동경로별 비정규직 고용증가 분석 5

- 고용형태 이동 매트릭스 작성 5
- 고용형태 전체 이동구조 분석 6
- 비정규직 부문의 고용 이동 특성 9
- 비정규직 선택동기의 자발성 변화 10
- 근로조건 및 사회복지 조건변화 11
- 비정규직의 선택동기별 주요 특성변화 13

III. 정책적 시사점

- '06.8~'07.3의 고용동향 주요 특징 14
- 시사점 15

<부록1> 비정규직의 정의(통계청) 16

<부록2> 부 표 18

<부록3> 고용형태간 이동분석을 위한 표본연계 방법 22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1. 독립된 두 기간의 횡단자료를 단순히 연결하여 분석한 자료이기 때문에 매칭된 자료의 표본에 대한 대표성 등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이 보고서에서 활용된 매칭자료는 공개가 안된 원시자료의 가공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대외적으로 공개되거나 공표되는 자료가 아닙니다.
3. 이 보고서는 기존 정부의 발표내용이나 각종 통계조사에서의 분석내용과 다소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어 대외유출시 노동계, 학계 등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자료 보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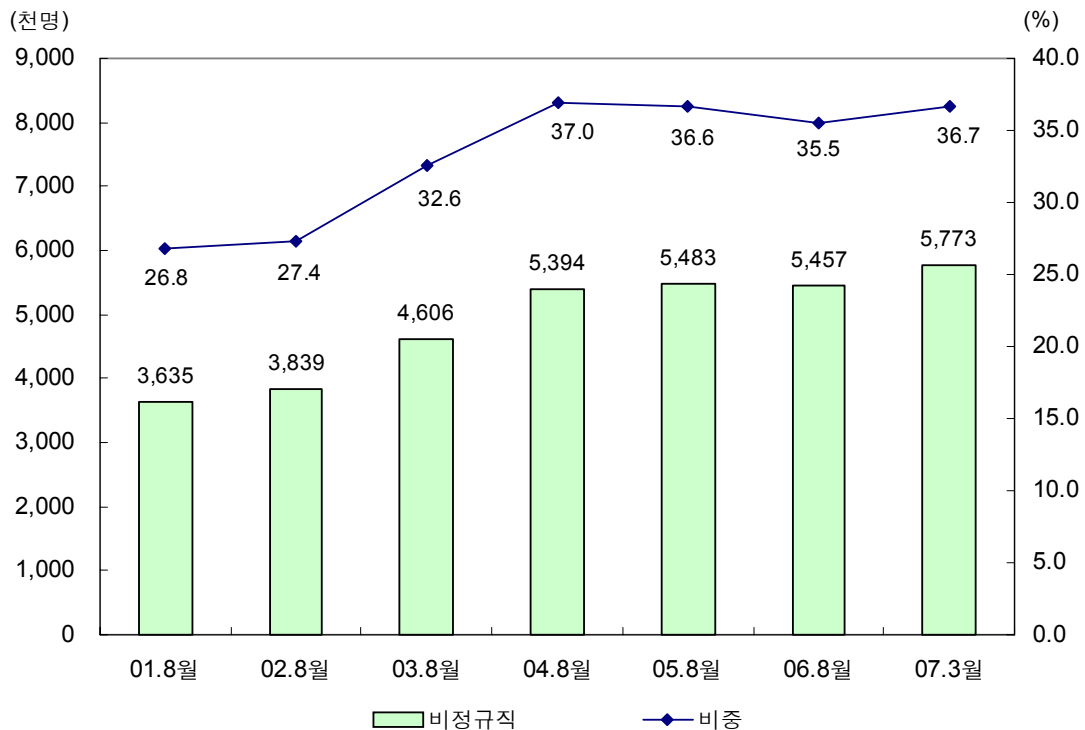
- 과거 2년간 감소하였던 비정규직의 고용비중 최근 조사에서 증가
 - '04년 8월 37.0%로 최고에 이르렀던 비정규직 고용비중은 '05년 8월과 '06년 8월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각각 36.6%와 35.5%로 감소
 - 그러나 '07년 3월에 이루어진 부가조사에서 비정규직 고용은 '06년 8월 대비 32만명 증가하고, 비중도 36.7%로 증가
 - 비정규직 증가(32만명)는 상용 비정규직 20만명, 일용 비정규직 10만명으로 구성
 - 고용형태 전체로 보면 '01년 8월에서 '07년 3월까지 비정규직 비중 증가, 정규직 및 비임금근로자(자영자, 고용주, 무급가족종사자) 비중 감소,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거의 불변
 - 15세 이상 인구에서 각 고용형태가 차지하는 비중 다음과 같이 변화
 - 비정규직: 9.9%→14.8%
 - 정 규 직: 27.0%→25.5%, 비임금근로자: 22.4%→18.9%
 - 실 업 자: 2.2%→2.2%, 비경제활동인구: 38.4%→38.6%
 - '06.8~'07.3의 고용형태 전출·입 분석 결과, 비임금 부분의 잔존비율이 가장 높고,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의 전입·전출은 상호간에 주로 이루어짐
 - 고용형태별 잔존비율은 비임금근로자(88.9%)→비경제활동인구(87.1%)→정규직(81.7%)→비정규직(64.4%)→실업자(20.0%) 순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전출·입의 50% 정도가 이루어짐
 - 대부분의 고용형태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전입이 활발
 - '06.8~'07.3의 비정규직 선택의 자발성 특성, 근로 및 복지조건은 개선 양상을 나타냄
 - 전체 비정규직 중 자발적 취업 규모의 비율 증가(51.5%→52.9%)
 - 자발적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체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보여 임금격차 축소(임금증가율: 자발적 비정규직 7.3%, 정규직 5.3%)
 - 근로복지 수혜율, 사회보험가입율의 사회복지조건 개선
- (※ 용어 정의는 <부록 1> 참고)

I. 최근 고용 동향과 비정규직 증가

□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 추이

- 지난 2년간 감소하던 비정규직 고용비중 최근 증가 양상
 - 비정규직 고용비중*은 '04년 8월 고점(37.0%)에서 '05년 8월과 '06년 8월에 감소
 - ☞ * 임금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비중
 - 그러나 '07년 3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서 '06년 8월 대비 31만 6천명 증가로 나타남
 - ☞ ** 비정규직 조사 매년 1회(8월)에서 '07년부터 연 2회(3월, 8월)

<그림 1> 비정규직 고용 및 비중 추이('01.8~'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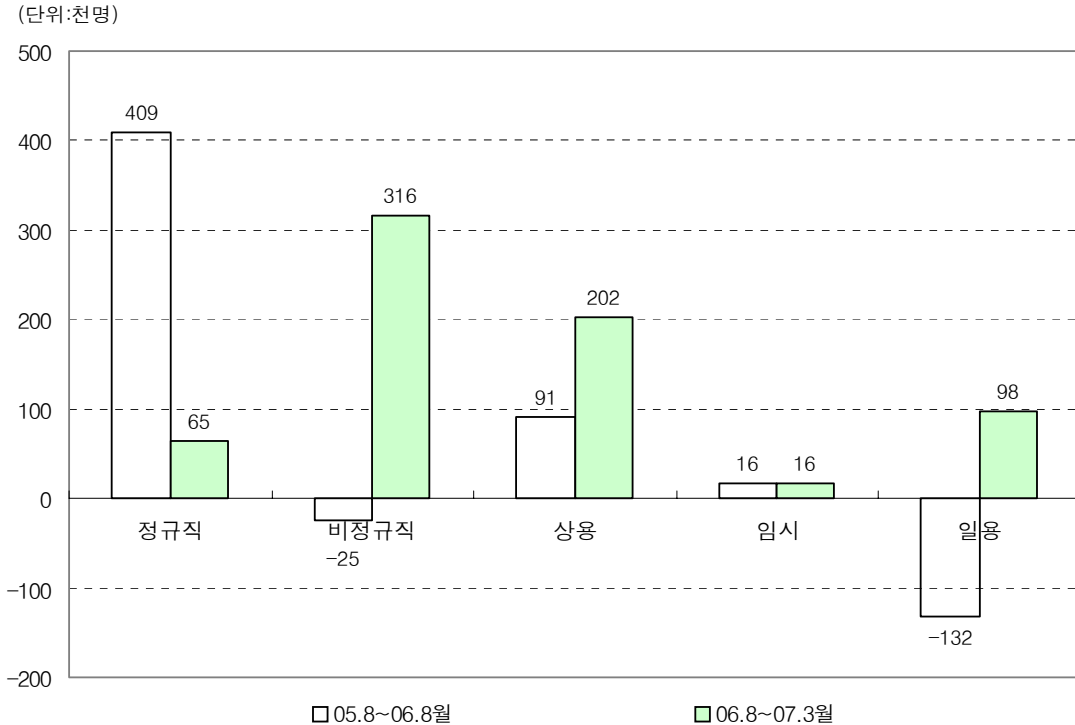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주: 비중은 임금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

□ 비정규직 근로자 종사자 지위별 규모 추이

- '06.8~'07.3(이하 Ⅱ기)와 이전 '05.8~'06.8(이하 Ⅰ기)와 비교하면, 정규직은 증가세 둔화, 비정규직은 현격한 증가
 - 정규직: Ⅰ기(40.9만명 증가) → Ⅱ기(6.5만명 증가)
 - 비정규직: Ⅰ기(2.5만만명 감소) → Ⅱ기(31.6만 증가)
- 비정규직의 경우 종사자 지위별로 상용 비정규직과 일용 비정규직 증가 현저
 - 비정규직 증가 31.6만명은 상용 비정규직 20.2만명, 일용 비정규직 9.8만명의 증가로 이루어짐

<그림 2> 종사자 지위별 증감 추이(<부표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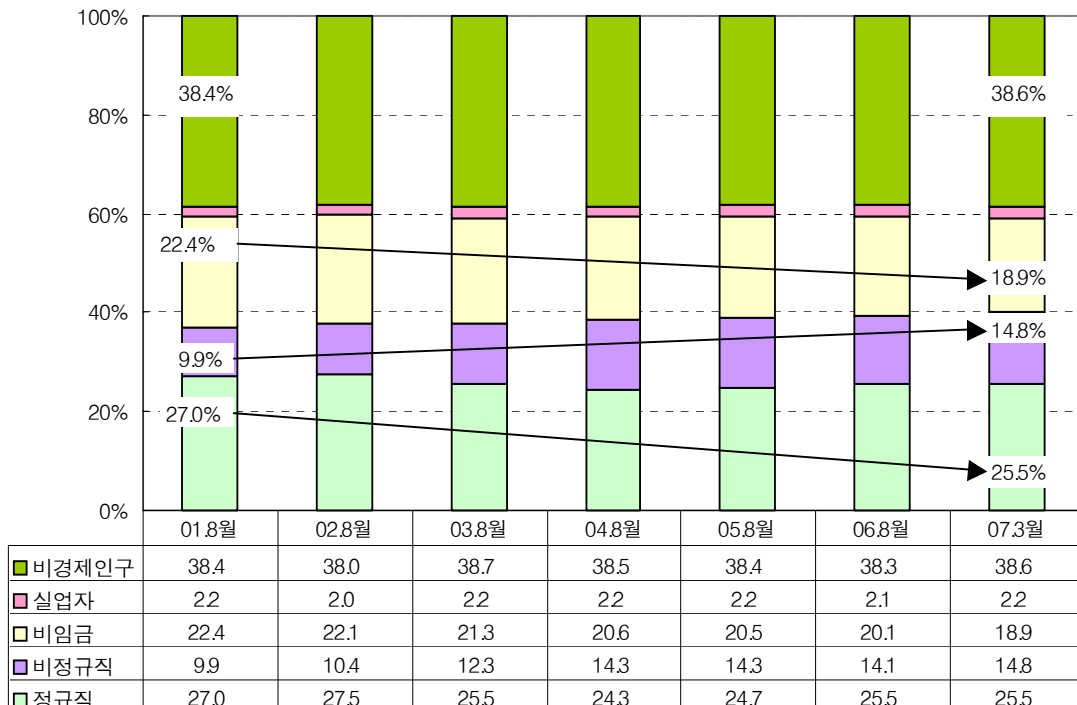


□ 고용형태 전체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 증가

○ 15세 이상 인구 전체의 고용형태별 추이를 보면 지난 7년간 ('01년 8월~'07년 3월) 비정규직 증가와 정규직 및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 현상 지속적으로 진행

- 15세 이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정규직 고용 비중은 '01년 8월 9.9%에서 '07년 3월 14.8%로 증가
- 같은 기간 정규직의 비중은 27.0%에서 25.5%로 감소, 또한 비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2.4%에서 18.9%로 감소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비슷한 수준 유지

<그림 3> 고용형태별 고용 비중 추이(<부표 2> 참조)



II. 고용형태 이동 경로별 비정규직 고용 증가 분석

□ 고용형태 이동 매트릭스 작성

- <표 1>은 '06년 8월에서 '07년 3월간의 연계가능한 표본을 대상으로 전체 고용형태 이동 상황을 표시한 것임(표 개념 설명은 <부록 3> 참조)
 - 15세 이상 인구 총 3,904만명의 67.6%에 해당되는 2,639만명이 연계됨*
 - * 연계되는 표본을 전체로 환산한 것임('07년 가중치 적용)
 - 각 고용형태별 증감을 보면 정규, 비정규, 실업자 부문이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

<표 1> 고용형태 이동 규모('06.8~'07.3)

(단위: 천명)

'06-->'07	정규	비정규	비임금	실업자	비경제활동	규모('06)	전출
정규	5,441	711	106	119	282	6,659	1,218
비정규	597	2,470	103	100	396	3,666	1,196
비임금	125	155	4,860	35	408	5,582	722
실업자	115	118	36	102	142	513	411
비경제활동	387	547	244	150	8,639	9,968	1,329
규모('07)	6,665	4,000	5,350	505	9,867	26,387	
전입	1,224	1,531	490	403	1,227		
증감	7	335	-232	94	-10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06. 8, '07.3 연계자료 기준.

주 : 규모('06)은 '07년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의 '06년 고용형태별 규모
 전입·전출은 잔존(동일 고용형태 유지)인원을 제외한 순수 이동 규모
 증감은 '07년 가중치를 적용했을 때의 각 고용형태별 증감

□ 고용형태 전체 이동구조 분석(잔존/전입/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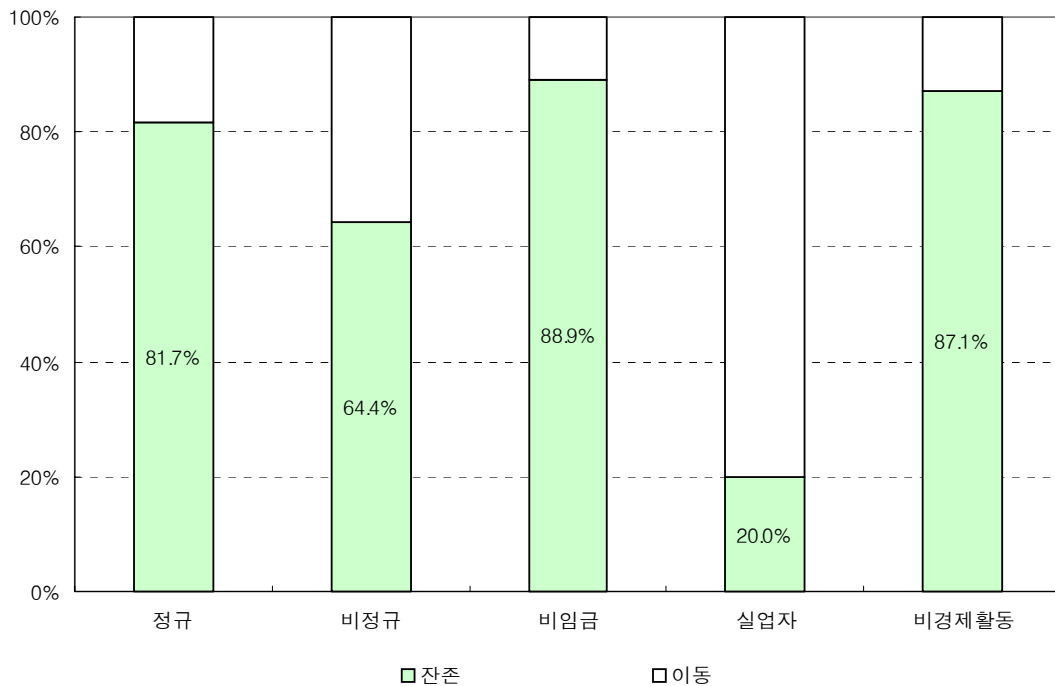
○ 우선 고용형태별 잔존비율을 보면 비임금 부문이 가장 높게 나타나 낮은 이동 정도를 보여주고 있음

- 고용형태별 잔존비율*은 비임금근로자(88.9%)→비경제활동인구(87.1%)→정규직(81.7%)→비정규직(64.4%)→실업자(20.0%) 순으로 나타남

☞ * 잔존비율은 전입·전출시 동일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비율

· 특히 실업자 부문은 20.0%의 매우 낮은 잔존비율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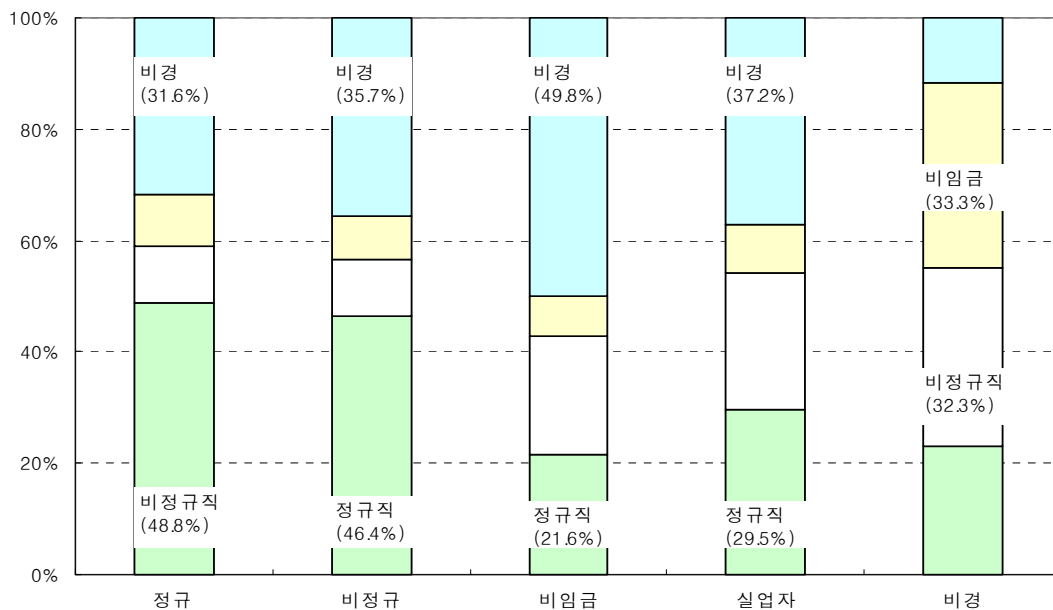
<그림 4> 고용형태별 잔존비율(<부표 3-1>, <부표 3-2> 참조)



주 : 잔존비율은 전입 측면에서 이전과 동일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비율(전입 잔존비율)과 전출 측면에서 이전과 동일한 고용형태를 유지하는 비율(전출 잔존비율)로 구분할 수 있음. 잔존비율은 둘의 평균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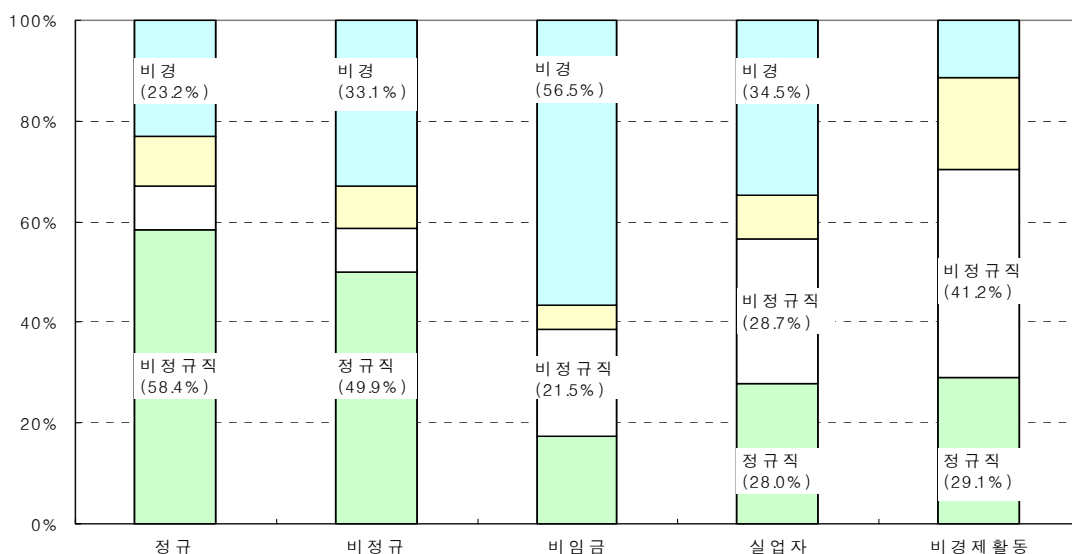
- 전입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각각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부터의 전입 비중이 가장 높으며, 비경제활동으로부터의 전입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정규직(122만명 전입): 비정규직에서 48.8%, 비경제활동인구에서 31.6%가 전입됨
- 비정규직(153만명 전입): 정규직에서 46.4%, 비경제활동에서 35.7%가 전입됨
- 비임금근로자(49만명 전입): 비경제활동인구에서 49.8%, 정규직에서 21.6%가 전입됨
- 실업자(40만명 전입): 비경제활동인구에서 37.2%, 정규직에서 29.5%가 전입됨
- 비경제활동인구(123만명 전입): 비임금근로자에서 33.3%, 비정규직에서 32.3%가 전입됨

<그림 5> 고용형태별 전입 비율(<부표 3-1> 참조)



- 전출 측면에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 각각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부터의 전출 비중이 가장 높으며,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출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정규직(122만명 전출): 비정규직으로 58.4%, 비경제활동인구로 23.2%가 전출됨
- 비정규직(120만명 전출): 정규직으로 49.9%, 비경제활동인구로 33.1%가 전출됨
- 비임금근로자(72만명 전출): 비경제활동인구로 56.5%, 비정규직으로 21.5%가 전출됨
- 실업자(51만명 전출): 비경제활동인구로 34.5%, 비정규직으로 28.7%가 전출됨
- 비경제활동인구(133만명 전출): 비정규직에서 41.2%, 정규직에서 29.1%가 전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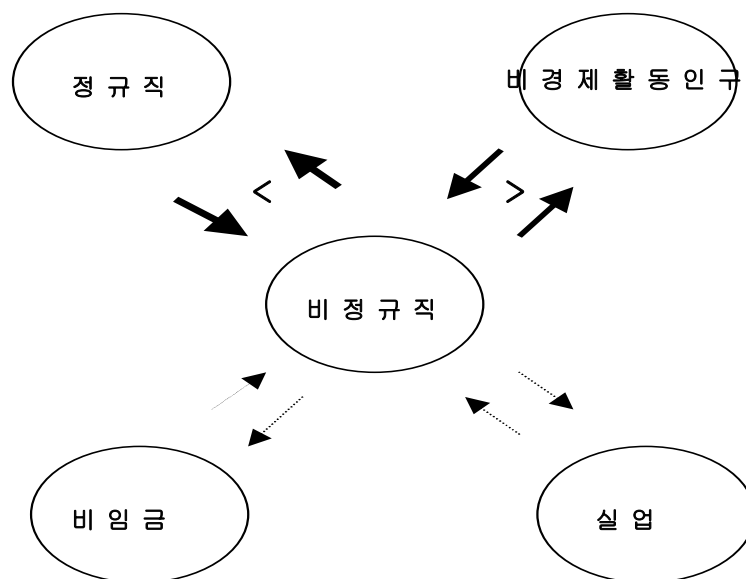
<그림 6> 고용형태별 전출 비율(<부표 3-2> 참조)



□ 비정규직 부문의 고용이동 특성

- 비정규직 관련 이동을 보면 50% 정도가 정규직과 이루어지고 나머지의 반 이상은 비경제활동 부문과 이루어짐
- '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 인원의 61.8%는 기존 비정규직 인원이며 나머지 38.2%의 인원은 정규직(46.4%), 비경제활동(35.7%), 비임금(10.1%), 실업자(7.7%)에서 전입됨
- '06년 3월 비정규직중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인원은 67.4%이며, 나머지 32%의 인원은 정규직(49.9%), 비경제활동(33.1%), 비임금(8.6%), 실업자(8.4%)로 전출됨
- '06.8→'07.3에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전출되었고, 비경제활동인구에서 비정규직으로 더 많이 전입됨
 - 정규→비정규: 711만 > 비정규→정규: 590만
 - 비정규→비경제활동: 396만 < 비경제활동→비정규: 547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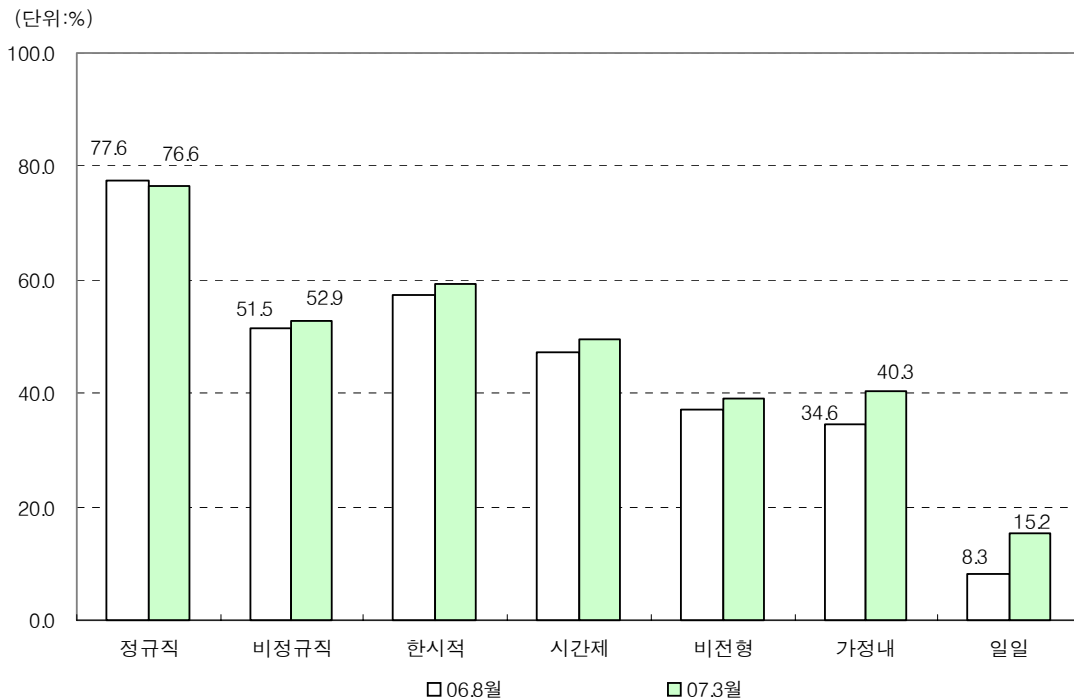
<그림 7> 비정규직의 주요 이동 경로(<부표 3-1>, <부표 3-2> 참조)



□ 비정규직 선택동기의 자발성 변화

- 비정규직의 자발적 취업 규모의 비율 증가
 - 비정규직중 자발적 취업 규모 비율 1.4%포인트 증가
 - '06년 8월 51.5% → '07년 3월 52.9%
 - 고용형태별로 보면 파견직 비정규직을 제외하고 모든 비정규직 형태에서 자발적 취업 규모 비율 증가
 - 특히 비전형 비정규직중 가정내근로자와 일일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 증가가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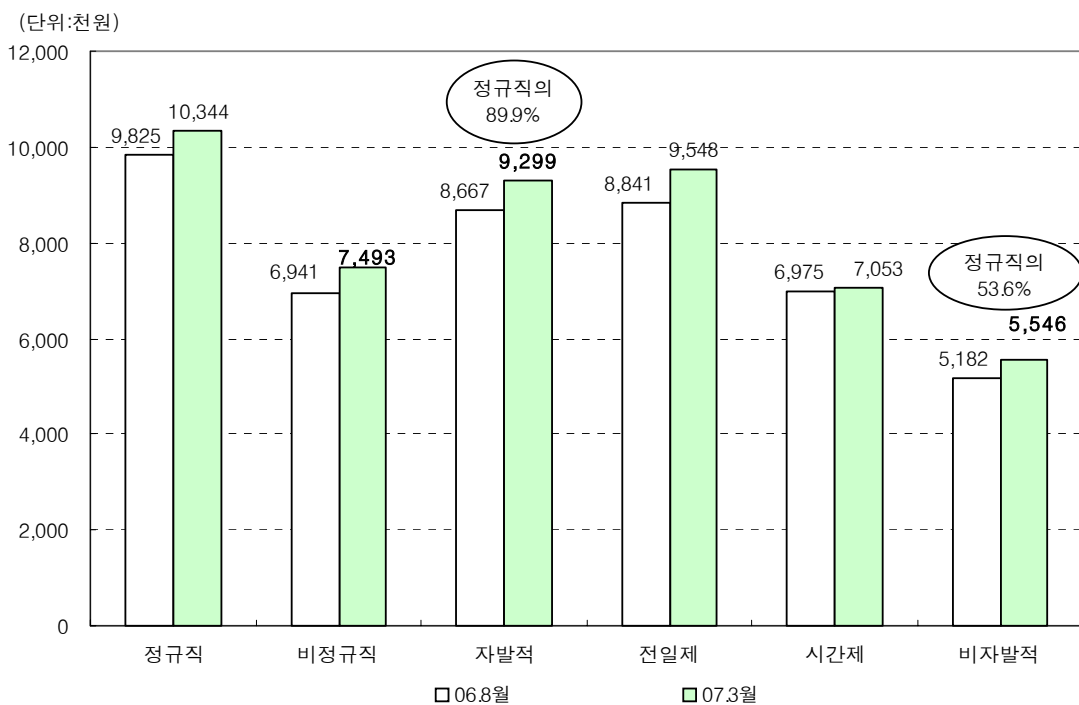
<그림 8> 고용형태별 자발적 선택 변화(<부표 4-1, 4-2> 참조)



□ 근로조건 및 사회복지 조건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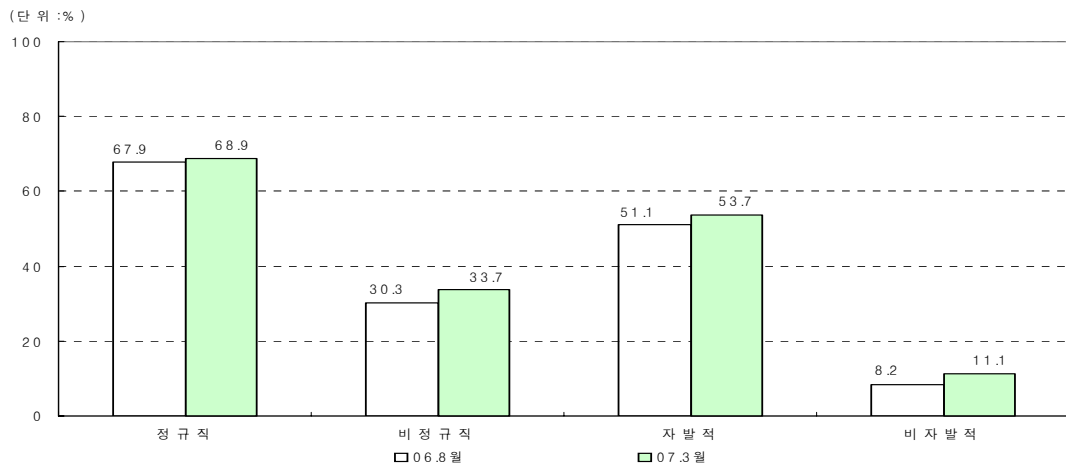
-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증가가 정규직에 비해 높게 이루어져 임금격차 축소
 -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07년 3월 7,493원으로 '06년 8월에 비해 8.0% 증가 (정규직은 5.3% 증가)
 - 특히 자발적 전일제 비정규직의 경우 시간제 비정규직에 비해 높은 임금 증가율 보임
 - 자발적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89.9%,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53.6% 수준

<그림 9>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비교(<부표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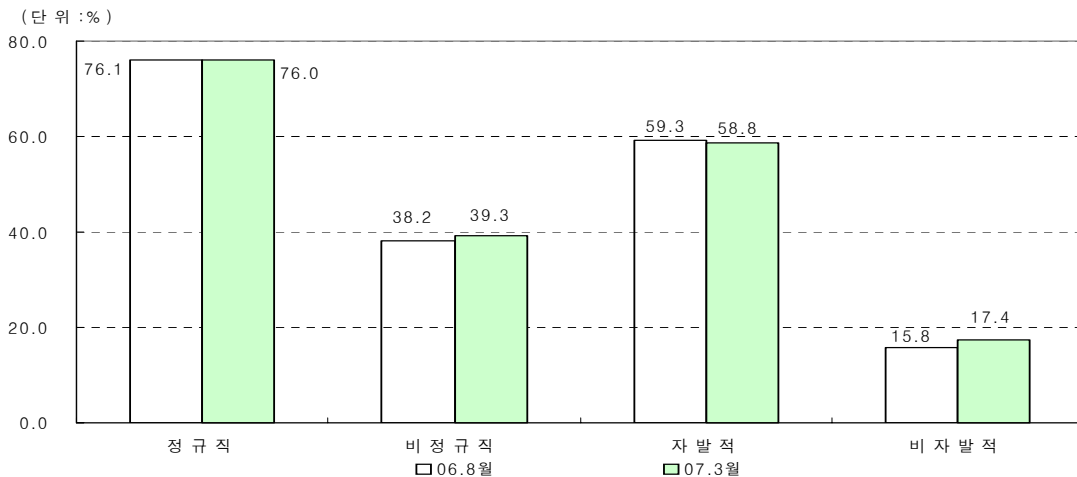
- 근로복지 수혜율은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에서 보다 크게 증가하여 그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정규직 비정규직, 자발적과 비자발적 비정규직간에 근로복지 수혜율의 큰 격차가 존재

<그림 10>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복지(퇴직금) 수혜율 변화(<부표 6> 참조)



- 사회보험 가입율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에서 모두 증가하였으나 그 격차는 이전 기간과 비슷한 수준 유지
- 상대적으로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이 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정규직, 비정규직 사회보험(국민연금) 가입율 변화(<부표 7> 참조)



□ 비정규직의 선택동기별 주요 특성 변화('06.8~'07.3)

- 비정규직중 일일, 용역, 시간 등의 부문에서 비자발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나 그 비율은 감소
 - 일일(91.7%→84.8%), 용역(53.3%→50.5%), 시간제(52.9%→50.5%)
-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자발적 비율 다소 증가
 - 1~4인(17.2%→17.9%), 5~9인(13.2%→13.3%), 10~29인(23.6%→23.7%)
- 성별로 보면 비정규직에서 자발적과 비자발적 여부와 관계 없이 남자의 비율이 증가
 - 비정규직 자발적 남자 비율(46.9%→49.0%), 비정규직 비자발적 남자 비율(52.4%→54.2%)
- 연령별로 보면 비자발적 비정규직에서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06.8~'07.3에 40대 이상 비율 증가 추세

<표 2> 연령별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비중 추이

(단위: %)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06.8	2.9	14.7	20.0	27.9	19.9	14.5
'07.3	1.5	13.8	19.3	29.8	20.7	14.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06.8, '07.3

-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직이, 업종별로는 건설업에서의 비자발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 단순노무직(38.9%), 기능공(19.6%), 판매종사자(12.2%)
 - 업종별: 건설업(25.8%), 도소매업(20.9%), 사업서비스업(13.7%)

Ⅲ. 정책적 시사점

□ '06.8~'07.3의 고용동향 주요 특징

- '06년 8월~'07년 3월에 비정규직은 32만명 증가,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7%에 달해 최근 7년간의 최대치
 - 최근의 비정규직 증가에는 계절적 요소(일용 비정규직 10만명 증가)와 추세적 요소(상용 비정규직 20만 증가) 병존
- 비정규직 증가의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본 분석에서는 고용형태별 이동 매트릭스를 작성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도출
 - 고용형태별 잔존비율은 비임금근로자(88.9%)→비경제활동인구(87.1%)→정규직(81.7%)→비정규직(64.4%)→실업자(20.0%) 순
 - 전입·전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경우엔 서로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부터의 전입 비중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비경제활동으로부터의 전출입 비중이 높게 나타남
 - 비정규직 고용증가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은 데 기인하나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정규직 전입도 활발
 - 정규→비정규: 711만 > 비정규→정규: 590만
 - 비정규→비경제활동: 396만 < 비경제활동→비정규: 547만
- 비정규직의 자발적 취업 비율 증가, 고용·사회복지 조건 개선
 - 비정규직중 자발적 취업 규모 비율 51.5%에서 52.9%로 증가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격차 축소
 - 근로복지 수혜율과 사회보험 가입율 증가

□ 시사점

- '06.8~'07.3의 비정규직 증가는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고용불안정적인 요소외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요소 포함
 -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정규직 고용으로의 편입
 - 비정규직의 자발적 선택비율 증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축소, 사회복지 조건 개선 등

- 비경제활동인구 부문의 고용이동에 대한 요인 파악과 고용으로의 전환 유도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

-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계절성 특성 파악과 고용형태별 이동 특성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기 위한 보다 통계적 접근 요구됨

〈부록 1〉

비정규직 정의(통계청)

-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임금근로자로 파악된 근로자중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통해 고용형태가 한시적, 시간제 및 파견·용역·특수고용·가정내근로·일일근로 등의 비전형 특성을 갖는 근로자
- 비정규직 고용 형태
 - 한시적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
 - 파견근로자: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 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용역근로자: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
 - 특수고용: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가정내 근로: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 일일(단기) 근로자: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부록 2>

부 표

<부표 1> 종사자 지위별 규모 변화 추이('05.8~'07.3)

(단위: 천명)

		05.8	06.8	07.3	05.8~'06.8	06.8~'07.3
정규직	상용	6,413	6,639	6,627	226	-12
	임시	2,803	2,926	3,080	123	154
	일용	269	329	252	60	-77
정규직 합계		9,485	9,894	9,959	409	65
비정규직	상용	1,512	1,603	1,805	91	202
	임시	2,076	2,092	2,108	16	16
	일용	1,894	1,762	1,860	-132	98
비정규직 합계		5,482	5,457	5,773	-25	316
임금 근로자	상용	7,925	8,242	8,432	317	190
	임시	4,879	5,018	5,188	139	170
	일용	2,163	2,091	2,112	-72	21
임금근로자 합계		14,967	15,351	15,732	384	38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부표 2> 고용형태별 규모 및 비중 추이('01.8~'07.8)

(단위: 천명, %)

		'01.8	'02.8	'03.8	'04.8	'05.8	'06.8	'07.3)
취 업 자	정규직	9,905 (27.0)	10,190 (27.5)	9,542 (25.5)	9,190 (24.3)	9,486 (24.7)	9,894 (25.5)	9,958 (25.5)
	비정규직	3,635 (9.9)	3,839 (10.4)	4,606 (12.3)	5,394 (14.3)	5,483 (14.3)	5,457 (14.1)	5,773 (14.8)
	비임금	8,198 (22.4)	8,195 (22.1)	7,978 (21.3)	7,797 (20.6)	7,877 (20.5)	7,813 (20.1)	7,390 (18.9)
실업자		822 (2.2)	735 (2.0)	810 (2.2)	848 (2.2)	843 (2.2)	807 (2.1)	840 (2.2)
비경제활동인구		14,075 (38.4)	14,054 (38.0)	14,454 (38.7)	14,542 (38.5)	14,739 (38.4)	14,864 (38.3)	15,084 (38.6)
합 계		36,635 (100.0)	37,013 (100.0)	37,390 (100.0)	37,771 (100.0)	38,428 (100.0)	38,835 (100.0)	39,045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주 : ()안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부표 3-1> 고용형태별 이동 비중(전입, '06.8~'07.3)

(단위: 천명, %)

'06-->'07	정규	비정규	비임금	실업자	비경제활동
정규	(81.6)	46.4	21.6	29.5	23.0
비정규	48.8	(61.8)	21.0	24.8	32.3
비임금	10.2	10.1	(90.8)	8.7	33.3
실업자	9.4	7.7	7.3	(20.2)	11.6
비경제활동	31.6	35.7	49.8	37.2	(87.6)
규모('07)	6,665	4,000	5,350	505	9,867
이동	1,224 (100.0)	1,531 (100.0)	490 (100.0)	403 (100.0)	1,227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06. 8, '07.3 연계자료 기준

주 : ()안의 비중은 대상 기간중 전년도의 고용형태를 유지(잔존)한 비율임

<부표 3-2> 고용형태별 이동 비중(전출, '06.8~'07.3)

(단위: 천명, %)

'06-->'07	정규	비정규	비임금	실업자	비경제활동	규모1('06)	이동1
정규	(81.7)	58.4	8.7	9.8	23.2	6,659	1,218 (100.0)
비정규	49.9	(67.4)	8.6	8.4	33.1	3,666	1,196 (100.0)
비임금	17.3	21.5	(87.1)	4.8	56.5	5,582	722 (100.0)
실업자	28.0	28.7	8.8	(19.9)	34.5	513	411 (100.0)
비경제활동	29.1	41.2	18.4	11.3	(86.7)	9,968	1,329 (100.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06. 8, ~'07.3 연계자료

주 : ()안의 비중은 대상 기간중 전년도의 고용형태를 유지(잔존)한 비율임

<부표 4-1> 고용형태별 자발적 비자발적 취업선택 변화('07.3)

(단위: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	가정내	일일
				기간제	비기간	기간제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발적	67.9	76.6	52.9	59.4	60.7	56.0	49.5	39.2	57.8	49.5	53.8	40.3	15.2
비자발적	32.1	23.4	47.1	40.6	39.3	44.0	50.5	60.8	42.2	50.5	46.2	59.7	84.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07.3

<부표 4-2> 고용형태별 자발적 비자발적 취업선택 변화('06.8)

(단위: 천명, %)

	임금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계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	파견	용역	특수	가정내	일일
				기간제	비기간	기간제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발적	68.3	77.6	51.5	57.3	56.8	58.8	47.1	37.1	58.3	46.7	51.5	34.6	8.3
비자발적	31.7	22.4	48.5	42.7	43.2	41.2	52.9	62.9	41.7	53.3	48.5	65.4	91.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06.8

<부표 5> 정규직, 비정규직 시간당 임금 비교('06.8~'07.3)

(단위: 원, %)

			3개월 평균(12주 기준)		증감율
			'06.8	'07.3	
임금 전체			8,875	9,384	5.7
비정규직	자발적	전일제	8,841	9,548	8.0
		시간제	6,975	7,053	1.1
		평균	8,667	9,299	7.3
	비자발적	전일제	5,079	5,519	8.6
		시간제	5,948	5,747	-3.4
		평균	5,182	5,546	7.0
비정규직 전체			6,941	7,493	8.0
정규직	자발적	전일제	11,173	11,855	6.1
	비자발적	전일제	5,664	5,894	4.1
	정규직 전체		9,825	10,344	5.3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06.8, '07.3

주: '06년 8월과 '07년 3월의 해당인력 규모분포로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균임금 산정

<부표 6>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복지 수혜율 변화('06.8→'07.3)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자발적	비자발적
퇴직금	67.9→68.9	30.3→33.7	51.1→53.7	8.2→11.1
상여금	67.5→69.5	27.7→31.4	47.2→51.8	6.9→8.6
시간외 수당	53.9→54.3	21.5→24.3	35.8→38.7	6.4→8.0
유급휴가	55.0→59.9	23.1→27.3	38.6→45.1	6.7→7.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06.8, '07.3

<부표 7> 정규직,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율 변화('06.8→'07.3)

(단위: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자발적	비자발적
국민연금	76.1→76.0	38.2→39.3	59.3→58.8	15.8→17.4
건강보험	76.1→76.6	40.0→41.8	61.3→61.4	17.4→19.9
고용보험	64.7→65.4	36.3→38.8	56.3→57.3	15.1→18.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06.8, '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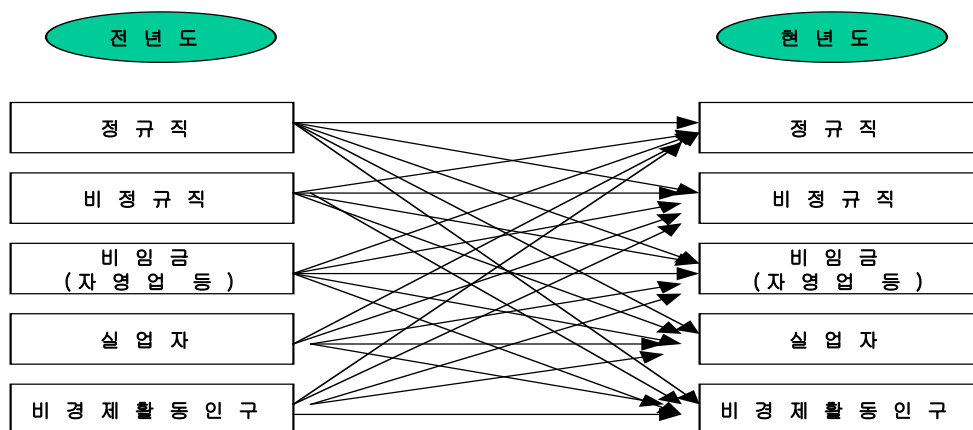
<부록 3>

고용형태간 이동 분석을 위한 표본연계 방법

□ 고용형태간 이동 측면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내용 파악 필요

- 현행 통계를 통해 각 해당연도의 비정규직 증가 규모는 파악할 수 있으나 고용형태간 이동을 파악하기 어려움
 - 특정 기간의 비정규직 규모는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인원에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전입된 인원과 비정규직에서 다른 고용형태로 이동한 인원의 차이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음
 - 비정규직이 어떤 고용형태에서 전입되었는가와 비정규직이 어떤 고용형태로 전출되었는가는 고용정책의 중요한 관심
 - 정규직의 비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의 실업·비경제활동 전환은 고용불안정성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임금·실업·비경제활동에서의 비정규직 전환은 고용 활성화로 해석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고용형태별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그림 1>에 표시된 내용의 이동 경로를 표현하는 이동 통계가 요구됨

<부그림 1> 고용형태별 이동 관계



□ 고용형태간 이동 매트릭스 통계

- 특정 기간동안 고용형태의 이동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형태로서 <부표 9>와 같은 고용형태 이동 매트릭스를 제시 가능
 - 특정 셀의 인원수(M_{ij})는 전년도 고용형태 i 에서 현년도 j 로의 이동, M_{ii} 는 전년도와 동일한 고용형태 유지(잔존)를 의미
 - 열의 합계인 $M_{.j}$ 는 각 고용형태에서 j 고용형태로의 이동(잔존 포함)을, 행의 합계인 $M_{i.}$ 는 각 고용형태에서 j 고용형태로의 이동(잔존 포함)을 의미
 - 동시에 $M_{.j}$ 는 현년도의 j 고용형태 인원을, $M_{i.}$ 는 전년도의 j 고용형태 인원을 의미
 - 따라서 가령 비정규직 열 합계 $M_{.2}$ 에서 M_{22} 를 빼면 특정기간의 비정규직의 증가분이, 비정규직 행 합계 $M_{2.}$ 에서 M_{22} 를 빼면 비정규직의 감소분이 되며, 그 차이($M_{.2} - M_{2.}$)가 비정규직 증감으로 표시됨

<부표 8> 고용형태 이동 매트릭스 통계($t_0 \rightarrow t_1$ 기간)

(단위: 명)

$t_0 \rightarrow t_1$	정규직	비정규직	비임금	실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합계(t_0)
정규직	M_{11}	M_{12}	M_{13}	M_{14}	M_{15}	$M_{1.}$
비정규직	M_{21}	M_{22}	M_{23}	M_{24}	M_{25}	$M_{2.}$
비임금	M_{31}	M_{32}	M_{33}	M_{34}	M_{35}	$M_{3.}$
실업자	M_{41}	M_{42}	M_{43}	M_{44}	M_{45}	$M_{4.}$
비경제 활동인구	M_{51}	M_{52}	M_{53}	M_{54}	M_{55}	$M_{5.}$
합계(t_1)	$M_{.1}$	$M_{.2}$	$M_{.3}$	$M_{.4}$	$M_{.5}$	M

□ 자료연계 매트릭스 통계

-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자료를 연계하여 고용형태 이동 통계를 작성한다고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음
 - 첫째, 이 조사가 표본조사이고 연동표본을 사용한다는 점이고, 둘째, 인구변화를 반영한 표본 가중치에 의해 비교연도간의 고용형태 숫자 추계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임
 - 연동표본의 특성으로 인해 비교 기간의 길이와 연계되는 표본량에 상충관계 존재
 - 비교 기간이 길면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나 연계되는 표본숫자가 적게 되는 단점이 있고, 연계되는 표본을 늘리기 위해 표본기간을 줄이면 의미있는 변화 파악 힘들
 - 또한 앞의 <부표 9>의 고용형태 이동 매트릭스 특성상 행의 합계와 열의 합계가 같아야 함
 - 연계표본의 경우 인구변화를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함으로써 비교연도간의 추계숫자 동일시에 따른 오차 존재
- 이러한 부분적인 제약점에도 불구하고 표본연계를 통한 고용형태 이동 매트릭스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특정기간의 고용형태 이동의 내용을 의미있게 파악할 수 있음
 - 즉, 어떤 고용형태가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할 때 어떤 부분으로부터 발생한 것인지를 봄으로써 고용동향의 변화 및 고용정책의 효과 방향을 판단할 수 있을 것임